

“학교 운동부 선수 육성도·교육청 협업 나서야”

김명지 도의원, “학생 수 감소 등 환경 좋지 않으나 현 상황에 대한 근본 원인·해결책 찾아야” 강조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선제 육성... 매우 고무적 아직 미흡해 효율적 운영 위한 개선·보완 필요”



적 운영을 위해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거석 교육감에게 “학부 모듈의 부담금이 가중되지 않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과 훈련장 시설 확충, 스포츠클럽 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학생 선수들이 훈련이나 인관침해의 시각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김관영 지사에게는 “영재선발대회 참여자들이 학생 선수로 연계되는 지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특히, 취약종목 활성화와 함께 소질이 있는 학생 선수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해 꾸준히 훈련과 선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지 의원은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도내 학생 선수들의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계획 등을 수립·운영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학생 선수육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저출산 현실에 따른 도내 학생 선수 육성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저출산 등으로 도내 학교 운동부 선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선수 수급에 적색 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특히, 도내 스포츠가 쇠락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냐는 도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도의회 김명지(전주11·사진) 의원은 제40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도내 학생 선수는 전북도의 소중한 자산으로 훌륭하게 성장해야 할 것이기에, 도와 도교육청의 협업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등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등 외적 환경이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제는 상

황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도내 학교의 전통 종목 육성과 함께 구기종목이나 취약종목의 경우 단일학교에서 선수 수급이 어려운 학교 운동부 종목(축구, 야구)을 지역의 다양한 소속과 수준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형 학교 운동부 전문스포츠클럽으로 전환했다.

또 학교에서 훈련장 설치와 확보가 어려운(수영, 동계스포츠 등) 종목들은 훈련장 중심 위탁형 학교 운동부 전문스포츠클럽으로 바꿨다.

김명지 의원은 “전문스포츠클럽 운영으로 선제적 육성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학생 선수와 학부모를 모두 만족시키기엔 아직 미흡하다”면서 “학교 운동부 전문스포츠클럽의 효

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과 훈련장 시설 확충, 스포츠클럽 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학생 선수들이 훈련이나 인관침해의 시각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김관영 지사에게는 “영재선발대회 참여자들이 학생 선수로 연계되는 지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특히, 취약종목 활성화와 함께 소질이 있는 학생 선수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해 꾸준히 훈련과 선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지 의원은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도내 학생 선수들의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계획 등을 수립·운영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학생 선수육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도내 배구 명문, 전국대회 동반 우승

전주 근영중·근영여고 배구부 내장산배 전국 중고배구대회서 1988년 이후 35년 만에 이뤄내 최우수 선수 등 개인상 휩쓸어



근영중·근영여고 배구부가 최근 정읍시 일원에서 펼쳐진 2023 정읍 내장산배 전국 중고배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전주 근영중·근영여고 배구부가 전국대회에서 동반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22일 전북도체육회(회장 정강산)에 따르면 최근 정읍시 일원에서 펼쳐진 2023 정읍 내장산배 전국 중고배구대회에서 근영중·근영여고가 우승을 차지하며 배구 명문임을 다시금 알렸다.

특히 이번 동반 우승은 지난 1988년 이후 35년 만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승리의 기쁨은 더욱 남달랐다.

근영여고는 서울 중앙여고와 풀세트 접전 끝에 3대2로 승리를 거두고 이 대회 최정상에 올랐다.

근영중은 서울 일신여고와 결승전에서 만나 2대1로 누르고 값진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이처럼 동반 우승을 일궈내면서 각종 개인상도 대거 휩쓸었다.

근영여고 최유림(센터)은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고, 우수공격상 배재은 공격수 김예원, 세터상 정민서, 지도자상은 김의성 감독이 각각 수상했다.

근영중의 유다은도 최우수 선수로 뽑혔고, 우수공격상 홍지윤, 세터상 오현아, 지도자상은 안철호 감독이 각각 선정됐다.

근영중·근영여고 최우영 총감독은 “선수들이 집중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동반 우승이라는 업적을 달성했다”며 “배구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윤희성 춘봉학원 이사장님과 학교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뉴시스

‘경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태권도가 함께 해요’

태권도진흥재단, 경기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협약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권규연 센터장은 “자라는 청소년들이 창의성을 키우고 비람직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태권도가 분명 도움 될 것이다”라며 “오늘 협약을 통해 경

기도 청소년들이 태권도원을 방문하고 효연지기를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태권도진흥재단 김용 본부장은 “전국의 많은 청소년들이 태권도원을 찾아 태권도를 보고 즐기고 체험하는 가운데, 8월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들을 위한 태권도원을 찾는다면, “백민명에 달하는 경기도내 청소년들 또한 태권도와 조금 더 가까워지도록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및 시군 청소년 기관과 협력 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경기도내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활동 지원 체계 구축과 역량강화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우주·전문선 기자



“아쉽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김하성이 21일(현지시각)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3 메이저리그(MLB) 샌프란시스코 지이언츠와의 경기 2회 초 삼진당하며 아쉬워하고 있다. 김하성은 4타수 1안타 1득점 2삼진 1도루를 기록했고 팀은 2-4로 패했다.

이번 주말, 남원에서 ‘국제 검도인 한마당 축제’

23~25일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체육관서 남원오픈·조병용 선생 추모 검도대회 개최 단체·개인전 구성... 7단 경기까지 치러져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체육관에서 23~25일 2023 남원오픈검도대회 겸 제31회 조병용선생추모검도대회가 열린다.

올해로 31회째를 맞는 남원오픈 국제검도대회는 한국 검도계의 거목인 남원출신 조병용 선생을 추모하는 대회로, 2015년부터 국제 대회로 승격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검도대회로 꼽힌다.

이번 대회는 2500여명의 국내외 선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일본을 비롯한 중국, 대만, 아르헨티나 등 해외 7개국에서 100여명의 선수와 임원 등도 함께할 예정이다.

대회는 단체전, 개인전으로 구성되며 초등부부터 최고의 경지인 검도 7단의 경기까지 치러질 예정이다. 경륜과 패기,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이 어우러져 여타 검도경기에서는 볼 수 없는 검도

의 진수와 품격을 만나볼 수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국제 검도인의 한마당 축제인 이번 대회가 검도의 저변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와 기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2023 민간문화시설 기획프로그램 지원사업

문화공간이룸
개관 5주년 기념 콘서트

신박듀오

Recital Duo

Maurice Ravel
Gabriel Fauré
C. Saint-Saëns
Georges Bizet

2023. 6. 24(토)
5:00pm

문화공간이룸
ART SPACE

주최·주관 | 문화공간이룸
후원 | 남원시·남원문화재단·남원문화재단
전주매일신문·문화공간이룸
기획 | 이윤정
티켓 | 전석 무료
문의 | 카카오톡 채널 '문화공간이룸'
1:1 문의 063)223-5323